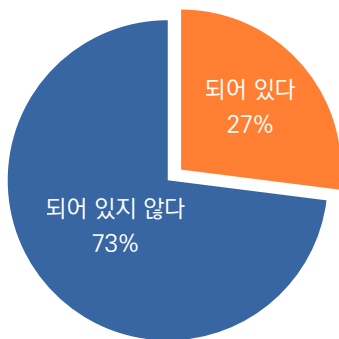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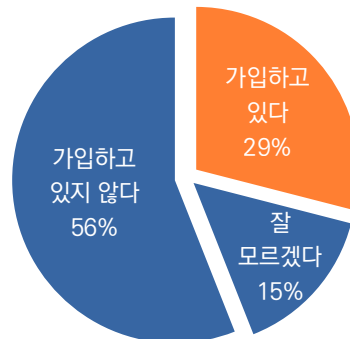
## 일반 국민의 간병 경제적 준비, 27%밖에 못하고 있어!

- ▶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, 질병,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간병 문제는 전 연령대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. 최근 간병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보았다.
- ▶ 간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지를 물었다. 그 결과, 본인 혹은 가족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다는 응답은 27%에 불과했다. 나머지 73%의 국민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주어질 경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.
- ▶ 또, 간병과 관련된 민간보험(특약 포함)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물은 결과, '가입하고 있다'는 응답은 29%로 나타나 사전 간병 대비를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간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



[그림] 민간 간병보험 가입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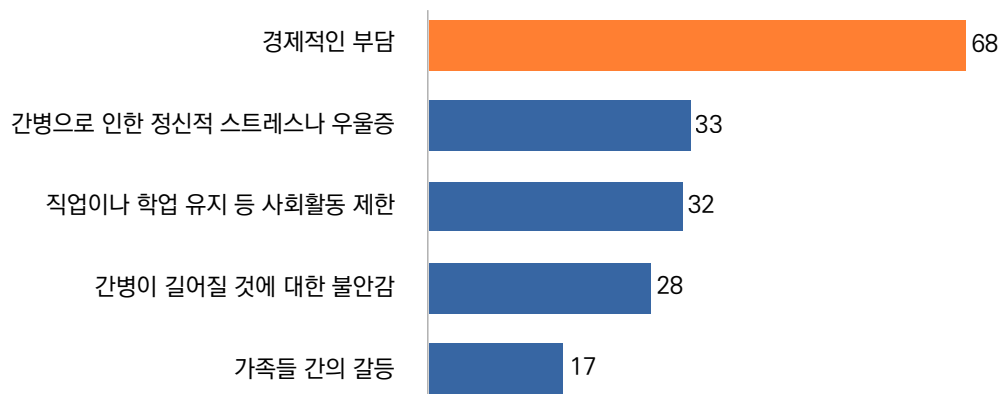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한국 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3.07.26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26.-05.30.)

### ◎ 부모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점, '경제적 부담'!

- ▶ 부모 간병 시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, 가장 많이 꼽은 응답은 '경제적인 부담'으로 3명 중 2명 이상(68%)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'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' 33%, '직업이나 학업 유지 등 사회활동 제한' 32%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부모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점 (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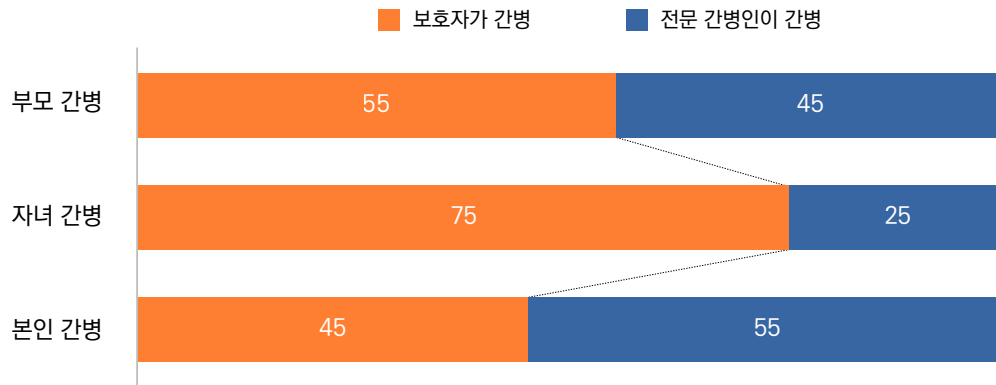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한국 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3.07.26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26.-05.30.)

## ◎ 부모와 자녀의 간병은 보호자가, 내가 아플 때는 전문 간병인 선호!

- ▶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‘누가 할 것인가’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‘부모’와 ‘자녀’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가 간병해 주기를 원하는지와 ‘본인’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.
- ▶ 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, 자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‘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겠다’는 응답이 각각 55%, 75%로 ‘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하겠다’는 의견보다 높았다. 반면 응답자 본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‘전문 간병인이 간병’(55%)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인이 아플 때는 가족들에게 간병 돌봄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.

[그림] 간병 희망 담당자\*\* (%)



\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한국 사회의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3.07.26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26.-05.30.)

\*\*부모 간병 조사 대상자: 부모 한 분 이상 생존자 764명, 자녀 간병 조사 대상자: 유자녀자 611명/ 본인 간병 : 1,000명